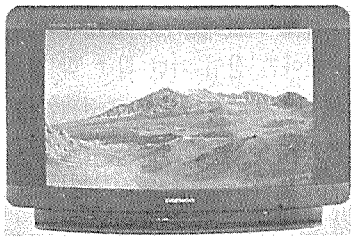
국·내·업·계·소·식

보급형 광폭 TV 개발
대우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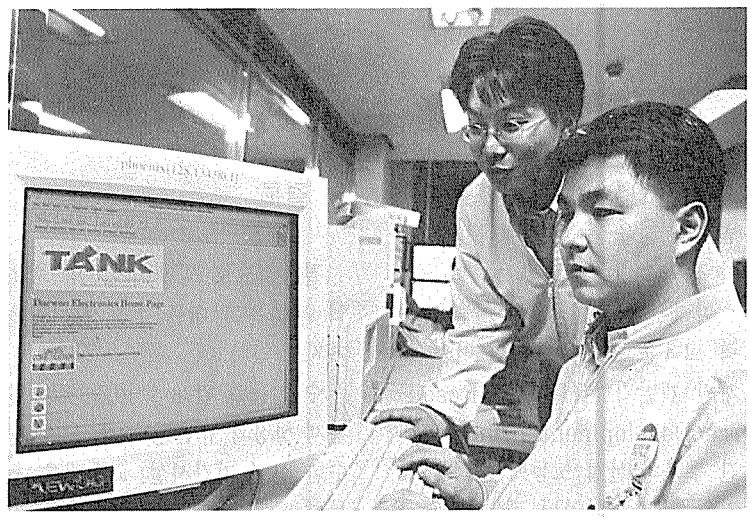


대우전자가 발표한 광폭TV「개벽와이드」(모델명 : DTW - 2800FW)는 28인치로 기존 TV의 아날로그 통신방식 대신 디지털기술을 적용해 화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방식의 멀티미디어기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동 제품은 특히 케이블 TV시대에 대비, 부화면 기능을 강화했는데 주화면과 부화면의 동시감상이 가능하고 자주 보는 6~7개의 방송채널을 별도로 입력, 손쉽게 탐색할 수 있다.

또한 가로와 세로 비율이 16대 9인 큰 화면은 물론 일반TV의 4대 3 크기 화면을 줌모드를 통해 상하 좌우로 확대, 4대 3과 16대 9의 중간크기인 5대 3의 화면을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다.

국내처음 인터네트 이용 해외연구인력 채용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는 세계화 추진에 따른 해외전문인력 및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차세대 첨단연구분야에 필요한 고급 연구인력의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세계 최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네트를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당인력을 충원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회사소개 정보 및 해외인력 채용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우전자는 특히 최근 설립한 프랑스 연구소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 중국 등 세계 주요지역에 2,000년까지 설립할 해외연구소에 필요한 500여명의 연구인력중 300여명의 현지 고급 연구인력과 2,000년까지 36개로 늘어나는 해외공장 및 40개로 늘어날 해외판매법인 소요인력 3만여명중 간부급 현지 전문인력 채용에 이 인터네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네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내용에는 배순훈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탱크주의 소개, 사업내용, 매출액, 인력, 해외진출 현황, 해외연구소를 포함한 연구개발 활동 등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과 입사지원신청 양식이 영문 및 국문으로 소개되는데, 인터네트 이용자중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사지원신청 양식에 맞춰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을 하면 된다.

인터네트에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정부, 업계, 대학, 연구소 등 주요 기관 대부분이 가입되어 자유롭게 정보를 보고 지원할 수 있어 특히 첨단분야에 필요한 선진국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 TDX 공급
대우통신(주)

대우통신(대표 : 유기범)은 국

내교환기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얀마에 1만 7,000회선규모 전자교환기(TDX)를 공급키로 하고 1차분 7,000회선을 설치, 운용에 들어갔다.

대우통신은 미얀마 다웨이 바고 타웅지 등 3개 지역에서 7,000회선분량의 TDX-1B급 전자교환기를 설치 완료하고 유기범 사장과 미얀마 제2서기(경제총괄) 틴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얀마 정부와 2차분 1만회선 규모의 교환기 공급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대우가 전자교환기 공급은 일본 NEC, 독일 지멘스에 이어 세번째이며 국내업체로는 처음이다.

다이·와이어본더 생산 동일교역

반도체장비업체인 동일교역은 최근 스위스 에섹(ESEC)사와 공동으로 다이본더 및 와이어 본더의 국내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동일교역과 스위스 에섹이 49대 50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에섹한국(대표 : 박원호)은 반도체 조립공정 장비인 다이 본더·와이어 본더와 공장자동화 대응설비인 「오토라인」 등의 장비를 수입 판매할 계획이다.

에섹한국은 이와 함께 에섹사의 장비들을 점차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한편 장비의 수출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스위스 에섹사는 지난 68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전문업체로, 반도체조립 장비인 다이어태치·와이어본더와 통합공장 자동화분야의 설비를 제작 공급해오고 있다.

고강도 PC 수지 시판 (주)미원유화

미원유화는 기존 소재보다 강도가 높고 내열성이 우수한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 PC(폴리 카보네이트) 수지를 개발, 시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미원유화 기술연구소가 2년동안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PC수지는 기존제품의 단점인 성형성 및 내후성을 보강, 외국제품보다 우수한 품질을 갖췄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노트북 컴퓨터 소재로 사용되는 이 소재는 성형성이 뛰어나 기존 소재의 성형가능한 두께(1.5㎜), 보다 절반정도 얇은 수준(0.8㎜)에서도 깨지거나 열변형을 일으키지 않아 제품의 경량화는 물론 원가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글 Motif 2.0 출시 삼보마이크로시스템

삼보 마이크로시스템(대표 : 강진구)은 X Window System 11 Release 5와 Motif의 최신버전 2.0을 한글화한 X11R5/Motif2.0을 국내업계 최초로 개발 완료, 시판에 착수했다.

이번에 발표한 X11R5/Motif 2.0은 기존의 X11R5/Motif1.2에 비해 성능이 향상됐고 Motif 스타일의 기능확장, 추가된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하여 프로그래머가 Motif2.0에서 제공하는 GUI 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X 및 Motif에서 한글 응용프로그램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글화에 중점을 둔 것은 Motif2.0에서 안정된 한글 및 한자의 입출력 처리기능이며 기존의 Motif1.2에서 발생했던 한글관련 버그(Bug)의 수정 및 메모리의 효율적 관리와 성능의 향상에 중점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삼보마이크로시스템에서 한글화한 한글관련 프로그램과 기타 유용한 퍼블릭 도메인 유틸리티 및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효율을 증가시켰다.

운영시스템 환경은 삼보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한 스팍기종의 솔라리스 1.X(Sun OS 4.X)와 솔라리스 2.X(Sun OS 5.X)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하에서 X 및 Motif 응용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삼보 마이크로시스템에서는 삼보 X11R5/Motif 2.0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최대한의 기술적인 지원

및 버젼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으며, 현재는 X Window System 11 Release 6에 대한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여 이 분야에서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중이다.

부산, 광주 등 지방 4대 도시에서 삼보 펜티엄 멀티미디어 쇼 개최
(주)삼보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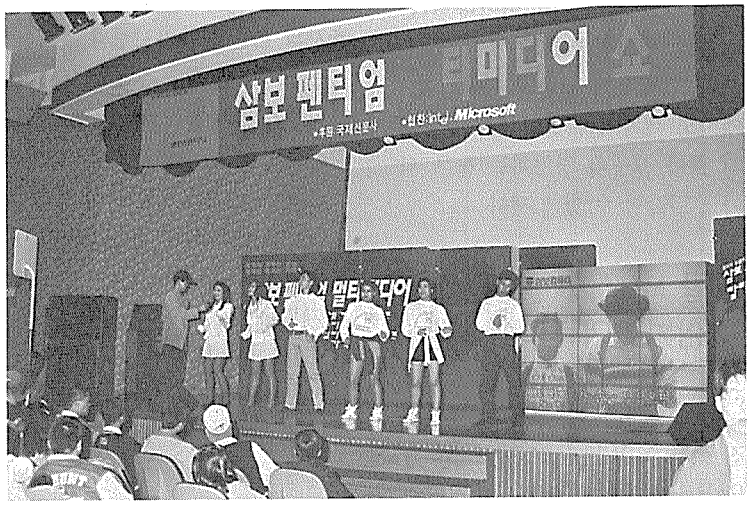
삼보컴퓨터(대표 : 이정식)가 4월 5일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4대 도시에서 '삼보 펜티엄 멀티미디어쇼'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로드쇼는 서울 중심의 전시회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 소비자들에게 전시회와 쇼를 통해 제품동향과 첨단 컴퓨터 기술에 대한 세미나 등을 제공한다.

삼보 펜티엄 멀티미디어쇼는 95년 들어와 지방영업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삼보컴퓨터의 구체적인 활동개시의 신호탄으로, 이번 지방로드쇼를 기점으로 신설된 지방 지사와 기존 영업소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3년 삼보컴퓨터의 지방영업 전체매출은 600억원인데 반해 지난해 이미 1,0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고 '95년 올해에는 약 1,6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폭증하는 지방의 정보화 욕구와 증대되는 시장분위기에 맞는 삼보컴퓨터의 본격적인 지원활동이 이번 로드쇼를 기점으로 구체화됐다.

칼라 브라운관 생산 세계화 박차
삼성전관(주)

삼성전관(대표 : 윤종룡)이 컬러브라운관 생산의 세계화 전략을 본격 전개키로 하고 해외 생산거점 완비 및 공장 증설작업에 적극 나섰다.



동사는 세계적으로 컬러브라운관의 공급이 크게 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 해외 현지공장의 생산능력을 조기에 확충하는 등 연말까지 세계 5개국에 생산거점을 모두 완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삼성은 이미 기존 말레이시아공장의 생산라인 증설작업을 서둘러 모두 5,000만달러를 투입, 이달부터 1개 라인을 확충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또 이달말까지 나머지 1개 라인의 증설작업도 추진, 이를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생산에 나서 이 공장의 생산규모를 연간 320만대에서 62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삼성은 독일공장의 경우 올해부터 경영정상화 작업을 전개, 매출 목표를 1,600억원선으로 잡고 앞으로 이 공장은 수익성 제고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회사는 또 연말께 양산에 나서기로한 멕시코공장 건설작업도 서둘러 당초계획보다 두세달 앞당겨 이를 완공, 오는 10월께부터 중형급의 브라운관을 조기에 생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국의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기반을 마련키 위해 추진해온 중국 진출작업은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구체화할 계획이다.

칩 네트워크 저항기 국산화
삼성전기(주)

삼성전기(대표 : 이정도)가 국내 업계 최초로 고부가가치 칩 네트워크 저항기를 자체 개발, 양산에 나섰다.

삼성전기가 3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칩네트워크 저항기는 일반고정칩 저항기를 네트워크화한 것으로 세트의 경박단소화에 적합해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PC나 캠코더·VCR 등에 기기연결부의 리플(Ripple) 방지용, 고주파 미분회로 필터용, 전자회로의 풀업 및 다운(Pull Up, Down)용으로 채용이 늘고 있다.

삼성전기는 1608(1.6×0.8㎜) 타입의 칩고정저항기 4개를 연결한 제품과 3216타입 4개를 연결한 제품 등 2개 모델을 개발, 5월부터 월 50만개씩 생산을 시작하고 점차 생산량을 늘려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리콘 2중막 16M DRAM 세계 최초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 김광호)는 최근 차세대 소자인 실리콘 2중막 웨이퍼(SOI)를 이용한 16MD램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SOI(Silicon On Insulator) 기술은 제품의 고집적화와 저전압화가 가능해 향후 256MD램과 1기가 D램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기술로 손꼽힌다.

삼성전자는 이번 SOI 기술을 이용한 16MD램의 완전동작이 가능한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관련 특허 20건을 국내외에 출원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SOI기술로 개발한 16DM램이 상품화되면 기존 제품에 비해 사용면적과 사용전압·동작속도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를 포함한 차세대 전자기기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학술대회인 「초고집적회로(VLSI)심포지엄」에서 SOI기술과 16MD램 칩을 발표할 예정이다.

SOI기술은 일본 및 미국의 선진 반도체업계에서도 기가급의 차세대 고집적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소재로, 전세계적으로 완전 동작하는 시제품은 지금까지 256KD램에 그쳤다.

SOI는 4,000에서 5,000Å(1Å은 1억분의 1m)의 실리콘 절연막 위에 다시 1,000에서 2,000Å정도의 실리콘 박막을 형성시킨 웨이퍼를 사용,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간단한 구조의 고집적 메모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기술은 또한 축적 용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고집적화가 가능해 기가급 이상의 초고집적 제품개발에 필수적인 기술로 알려졌다.

64메가 플래시 메모리 일본 도시바와 공동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가 일본 도시바사와 차세대 메모리인 「64메가 플래시메모리」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도시바사의 이번 협력은 종래 각사가 보유한 기술을 공유하던 형태에서 발전, 양사 연구진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후 제품은 각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공동설계개발, 각자 생산방식의 새로운 협력형태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연구진을 도시바에 파견, 공동연구를 수행케 되는데 한일 반도체업계의 연구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공동개발은 처음있는 일이다.

양사가 공동개발할 플래시메모리는 D램(전기를 끊으면 정보가 지워지는 기억소자)과 롬(읽기전용 기억소자)의 장점을 모은 것으로 전기를 통하지 않아도 기록된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며 필요시 정보를 지우거나 새로 저장할 수 있는 첨단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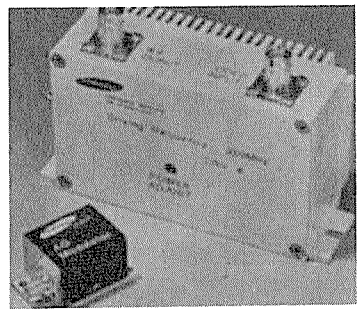
양사가 개발한 64메가 제품은 엄지손톱만한 칩 속에 신문지 500장에 해당하는 정보를 건전지의 재충전없이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신용카드 크기의 메모리카드로 사용할 경우 신문지 1만장 분량의 정보(160메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다.

광변조기 국내 첫 개발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종합기술원(대표 : 하성한)은 최근 광전자 분야의 핵심부품인 광변조기(AOM)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종합기술원이 개발한 광변조기는 차세대 영상기기인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리코더(DVDR)의 광원인 녹색 레이저광의 방향을 제어해 광디스크에 디지털신호를 기록하는 핵심소자로 광신호의 회절효율을 82%까지 높여 광신호손실이 거의 없으며 스위칭 시간이 1억분의 9초까지 짧아 광디스크기록 및 재생신호의 신뢰성을 향상시킨 점이 특징이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이번 AOM개발을 위해 초음파변환효율이 뛰어난 리튬니오베이트($LiNbO_3$) 단결정을 16~0.5μ 두께로 초정밀가공해 200MHz 초음파발진용 변환기로 사용했고 매질로는 음향광학적 성질이 우수한 테릴리움옥사이드(TeO_2) 단결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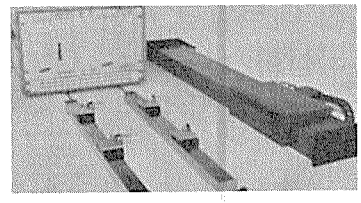
삼성종합기술원은 이번 광변조기의 개발로 광변조기설계기술을 비롯해 초정밀 가공기술·고출력 고주파회로설계 및 제작기술을 확보, 향후 광컴퓨터 및 광통신분야의 핵심소자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변조기는 초음파발진용변환기와 고체상태의 매질로 구성돼 있는데 초음파발진용 변환기에서 초음파로 변환하여 고체상태의 매질로 전달되면 매질내의 굴절률이 주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레이저광의 진행방향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리니어 스텝 모터 국산화
삼성항공산업(주)

삼성항공(대표 : 이대원)이 국내 최초로 초정밀 고속 구동장치인 선형 모터(리니어 스텝 모터, 모델명 : SLSM100)를 개발했다.

삼성항공은 첨단 기술개발사업인 G7프로젝트사업으로 지난 10년동안 10억원을 투자, 생산기술연구원·아주대 등과 공동으로 초정밀가공에 쓰이는 고속리니어 스



템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모터는 기존 회전형 모터와 달리 직선방향으로 이동하는 디지털모터로서 공기베어링을 이용한 비접촉구조로 설계, 고정면과 움직이는 면간에 50미크론 정도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진동이 거의 없고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또한 경박단소한 설계로 강도와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 기존의 회전형모터가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으며 1,000분의 5㎜내외의 제어정밀도를 갖추는 등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

윈도우즈용 한글 WP 공급
쌍용컴퓨터(주)

쌍용컴퓨터(대표 : 김영서)가 윈도즈용 한글 워드프로세서(WP) 시장에 신규 진출한다.

쌍용컴퓨터는 최근 강력한 양식지정기능을 비롯, 한글의 문화적 특성을 살릴수 있는 문서작성 기능 등이 내장된 윈도즈용 한글WP「세종」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IBM 55xx워크스테

이션용 「세종」과 「화랑」 등 도스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WP제품을 내놓은 바 있는 쌍용컴퓨터는 이번 윈도즈용 「세종」의 출하를 계기로 사무자동화(OA)용 윈도즈 패키지SW 시장에 본격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윈도즈용 「세종」은 여러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과 다단계 문서 복구기능, 임의 단축키 지정기능, 「한글」 등 타 WP호환 기능, 객체연 결과 포함(OLE 2.0)기능, 12개의 단어사전을 이용한 한글맞춤법검사기능 등 첨단 문서편집기능이 내장돼 있다.

37인치 칼라 TV 개발 아남전자(주)

아남전자(대표 : 김주연)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최대 크기인 37인치 대형TV를 개발하고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사는 최근 대형TV의 국내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33인치 제품에 이어 국내에선 최대 크기인 37인치 제품을 선보이고 이달말부터 본격 시판키로 했다.

이 제품은 화질부분에서는 슈퍼 플랫 브라운관을 채용, 화면 구석구석까지 왜곡되지 않는 실감있는 선명한 영상을 재현하며 도트 방해현상을 완전히 제거해 더욱 깨끗한 영상을 즐길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내부스피커 박스구조를 갖추고 있고 유닛을 적절하게 배치, 오디오와 맞먹는 초강력 파워를 내며 국내 최초로 더블 슈퍼우퍼 스피커시스템으로 대형화면의 영상에 어울리는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다.

기능부분에서는 주변의 환경이나 방송 변화에 따라 최적화질과 음질을 제공해주는 카멜레온 기능을 첨가시켰고 4채널은 예약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은 348만원.

MPU-401 규격 지원 전용 IC 개발 (주)옥소리

(주)옥소리(대표 : 김범훈)가 국내 처음으로 세계 컴퓨터 음악처리신호 규격(MIDI)의 산업표준으로 통하고 있는 MPU-401 규격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전용 IC를 개발했다.

옥소리는 6개월의 연구끝에 MIDI의 산업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 롤랜드사의 MPU-401 규격을 지원토록 설계된 전용 IC(모델명 OKSORI2E)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옥소리가 이번에 MPU-401 규격을 전용 IC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단일칩으로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MIDI음악을 듣기 위해 사운드 카드에 별도의 MIDI 카드를 부착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MIDI 카드를 단일칩으로 설계함에 따라 컴퓨터 음악을 지원하는데 따른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PC를 구성하는데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TUV마크 획득 (주)오토닉스

(주)오토닉스는 1977년 제어기기 메이커로 창업한 이래 수입에 의존하던 센서 및 제어기기를 국산화하여 오늘날 공장자동화의 전문 메이커로 국내에서 선두주자로 자리잡아 왔다.

연 매출액대비 10%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이야 말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있는 Item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저희 오토닉스 연구원들은 온 정열을 쏟고 있다.

'90년 2월 정부공인 부설 제어계측 연구소를 설립(제272호)하였고 '92년 4월에는 근접스위치 "KS" 표시허가 획득을 하였다.

'92년 11월에는 "100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12월에는 카운터(FX시리즈) "UL" 마크를 획득하였다.

'93년 8월에는 상공부지정 "기술선진화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같은해 9월 FX카운터 카나다 "cUL" 마크를 획득하였고 '94년

8월엔 국내 센서업계 최초로 근접 스위치에 대하여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기술과 노력을 바탕으로 '94년 11월 동 업계 최초로 LCD 타이머 LE3S시리즈를 국제품질 인증 기관인 독일 기술검사 협회에서 인증하는 "TUV" 마크를 획득하게 되어 보다 만족스런 신뢰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수출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오토닉스는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신감각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DRAM 에러율 최소화 「EDO형」 96년 출시 LG반도체

LG반도체는 기존 D램의 에러율을 최소화한 EDO(Extended Data Out)형 D램을 내년 상반기중 출시하는 등 멀티미디어관련 반도체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특히 기존 특정제품을 개발해놓고 이를 수요자가 나름대로 응용해 사용할 수 있게 했던 메모리 반도체 개발도 앞으로는 ASIC(주문형반도체)처럼 제조업체와의 기술 공조체제를 구축해 수요업체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다.

LG반도체는 롯데호텔에서 자사 고객인 제조업체, 관련연구소 개발자 100여명을 초청해 개최한 「IMS(인포메이션미디어시스템) 및 신제품 기술세미나」에서 앞으로 반도체의 발전추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LG반도체는 메모리의 경우 기존의 D램에 데이터의 인·아웃기능을 추가한 EDO형, 20~30나노초대의 램버스(Rambus), 싱크로너스메모리 등 초고속제품을 집중개발, 자사 주력 반도체군으로 삼아 영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와함께 IO카드 및 LAN카드, 팩스모뎀 등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비디오·사운드·통신을 통합한 PC & 퍼리퍼럴제품을 중점 개발하는 한편 고체촬상소자(CCD)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초저전력 1M SRAM 개발 LG반도체(주)

LG반도체(대표 : 문정환)는 최근 휴대용 기기의 주기억용 소자 및 산업용 시스템에 활용되는 소자로 사용되는 초 저전력 고속 1M SRAM을 개발하여, 7월부터 본격 양산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동제품은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 전자수첩, 휴대용 전화기 등의 휴대용 기기의 주기억용 소자, 팩스/모뎀, 교환기 등의 통신용 시스템 및 산업용 시스템의 버퍼용 기억 소자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써, 지난 93년에 착수하여 약 2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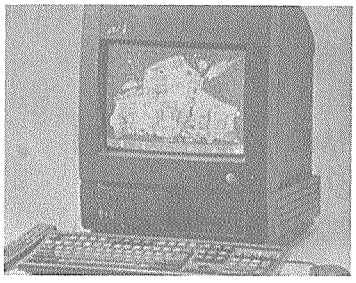
동제품에는 박막트랜지스터 기술을 채택하여 초 저전력화를 달성하였으며, 동작시에는 자동으로 전력소모가 줄어들도록 하는 회로기술을 채택하였고, 또한 경박한 Packing Type(SOP/TSOP)을 채택하여 휴대용 기기에 응용이용이하도록 하였다.

처리속도나 55나노초(10억분의 1초)로 고속 동작이 가능하며 동작 전압은 3V와 5V를 겸용할 수 있다. 특히 대기시 소비전류를 기존 저전력 제품이 100㎂이던 것을 5㎂로 획기적으로 줄인 초 저전력 제품으로 전력을 건전지에 의존하는 휴대용 기기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다.

세계적으로 초 저전력 SRAM은 선진 몇몇 회사에서만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LG반도체의 이번 개발로 인해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일본, 유럽, 미주, 동남아 등지에 대한 수출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PC, TV, 오디오, 통신 통합 가전제품 첫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 이헌조)는 국내 처음으로 PC본체와 모니터 스피커를 일체화시켜 게임 영화 TV음악감상 통신 등을 한꺼번에 이용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홈PC(모델명 심포니 홈)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지난해 1월부터 총 21명의 연구인력과 17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심포니홈은 외형은 TV와 같으며 일반 가전제품과 같이 리모컨으로 모든 기능을 쉽게 조작, 컴퓨터 초보자도 TV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별도의 주변기기를 연결하지 않고도 TV, 비디오CD를 이용한 영화감상, 오디오CD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통신기능도 내장, 사무기기나 교육용 기기로서의 PC영역을 확대시켜 PC를 본격 가전제품으로 정착시켰다.

486 POS 출시
LG정보통신(주)

LG정보통신(대표 : 정장호)이 자체개발한 PC-POS시스템의 본격 시판에 나섰다.

LG정보통신은 지난 22일 신제품발표회를 열고 1년간의 연구개발끝에 자체개발한 486급 PC-POS시스템(모델명 : 매직포스)을 본격 판매 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앞으로 각광받을 IC카드의 상용화에 대비, IC카드의 인터페이스를 장착했으며 정전시 자체충전된 전원으로 3분간 작동돼 POS데이터를 백업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LG정보통신은 시스템 단말기와 함께 개점, 판매, 점검, 정산, 설정, 관리 등의 응용 SW도 개발해 독립매장에서 스탠드어론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 8월 1차 개발된 이 제품은 지금까지 약 4차례의 품평회를 실시했으며 모니터 설계변경, 프린터 속도향상, 고객표시부 회전각도 조정 등이 보완작업을 거치느라 상품화가 지연돼 왔다.

한편 LG정보통신은 저가정책으로 제품보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아래 직접판매 및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과 협력사 특약점 등을 통해 제품판매에 나설 계획이며 해외지사와 수출오퍼상 등을 통해 해외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피아노 개발
한국전자(주)

한국전자가 하이그로시 패션 디지털피아노를 개발, 시판에 나선다.

이 디지털피아노는 고출력앰프를 내장, 원음에 가까운 소리의 재현이 가능하며 전통국악장단인 세마치와 굿거리를 비롯, 16가지의 한국인 정서에 맞는 자동반주리듬을 내장하고 있다.

특히 원음에 가까운 128가지 음색은 표준미디어와 호환돼 컴퓨터 음악 등 멀티미디어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실제 어쿠스틱피아노의 터치감 실현을 위해 정밀한 디지털 필터를 채용하고 있다.

평화은행에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발급기 공급
한국컴퓨터(주)

한국컴퓨터주식회사(대표 : 한홍영)는 최근 평화은행에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 자동발급기(일명 M/S Card Reader/Writer)를 공급했다. 평화은행측이 이 제품을 도입함으로써 자행의 각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즉시 직불카드 및 현금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품은 RS-232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되어 있으며, ISO 표준방식으로 데이터를 Read/Write 하고 있다.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은 5개 LED 상태표시기 부착, 카드 Capture 기능 보유, 전압자동 조절기능, 0.2㎜까지의 얇은 종이카드 이용가능, 높은 항자력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판독 및 기록 가능, ISO 트랙 1/2/3 Read/Write 기능 보유 등이다.

직불카드(Debit Card)란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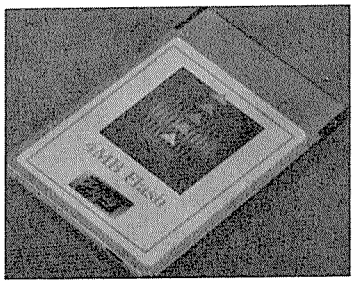
의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 은행계좌에서 물품을 구입한 만큼의 금액이 즉시 유통업체로 이체해주는 카드이다.

PC 카드사업 진출 해태전자(주)

해태전자(대표 : 신정철)는 2000년 종합정보통신업체로 부상키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PCMCIA(PC 카드) 사업에 본격 진출키로 했다.

해태전자는 정보통신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PCMCIA를 개발, 자체브랜드로 본격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PCMCIA는 그간 노트북을 중심으로 휴대용기기의 표준처럼 확산되던것이 올해부터 데스크탑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요증가 추세에 연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동사는 현재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을 통해 미국 판매회사인 아이거 랩(EIGERLABS)사에 샘플공급이 시작,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보통신사 TV/COM사 인수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는 미국의 영상압축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첨단기술 보유업체인 TV/COM 인터내셔널사를 2,200만달러에 인수키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현대의 이번 TV/COM사 인수는 기존의 주식 인수방식과 달리 특허와 인력 등 기업전반을 인수하는 자산인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TV/COM사는 지난 73년 설립된 회사로 영상압축 및 전송, 유료 TV의 선별적 방송, 서비스 가입자 관리등 정보통신분야의 핵심특허 25건을 갖고 있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다.

이 회사는 미국 제너럴 인스트루먼트 및 사이언티픽 애틸랜트, 네덜란드 필립스 등 세계적인 전자정보통신업체들에 기술을 제공하고 연간 350만달러의 로열티 매출을 올리고 있다.

EMC 국제공인 시험기관 선정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대표 : 정몽헌)는 독일의 전기전자기술자협회로부터 정보기기 제품에 대한 EMC(전자파양립성)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선정됐다.

현대전자가 유럽연합으로부터 EMC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국내 처음으로 시험 대상품목은 PC 비디오 CD 플레이어 모니터 등이다.

EMC란 전자 기기가 사람이나 다른 전자제품에 전자파 장해를 주지않는 동시에 다른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 완벽한 전자파 보호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전자 제품은 EMC 규격에 충족돼야 한다.

현대전자가 공인 시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회사는 유럽지역 내에서 별도 인증 없이 자체 승인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